

People & Life

결그룹 '미스에이'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



법무부는 오는 5월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다국적 여성 가수 그룹 '미스에이(Miss A)'를 제4회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스에이는 한국인 민(이민영)과 수지(배수지·사진), 중국 국적의 페이, 자야로 이뤄진 4인조 여성 그룹으로, 지난해 데뷔해 '베드 걸', '브리드' 등의 곡으로 높은 인기를 얻었다.

이커닝 법무장관은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한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위촉식은 내달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2011 강진 군민상' 운영상세 등 선정



〈윤영상〉 〈김근진〉 〈법홍스님〉

강진군은 지난 28일 강진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교육문화 부문 운영상(63·다산금속 대표) 씨 ▲농림어업 부문 김근진(56·강진읍 농협장) 씨 ▲지역사회봉사 부문 법홍(54·남미복사 주주) 스님을 2011년도 '군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윤씨는 1957년 다산유년보존회를 설립해 다산초당을 복원·공개하는 등 다산을 테마로 한 강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김씨는 고품질 강진 쌀 생산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틈새 고소득 작목 개발과 보급에 노력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법홍 스님은 1980년 남미복사를 창간, 연 6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승지 개발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회합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시상식은 5월 2일 '제39회 군민의 날' 행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h@kwangju.co.kr

오종택 전남대 교수 국무총리 표창



오종택 전남대 병동공조공학과 교수가 최근 개최된 '2011 한국국제병난방공조전(HAR-FKO2011)'에서 병난방공조산업진흥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오 교수는 IIR(국제병동기구) 전문위원 및 관련 학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논문 발표 및 강연, 기술지원 등에 앞장서 왔다.

초등국어교육학회장에 임성규 교수



임성규 광주교육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최근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장에 취임했다. 임 교수는 향후 2년간 초등국어교육의 발전을 이끌게 된다.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는 1985년 창립한 전국 규모의 학술단체이며, 초등국어교육과 관련된 연대 및 실천의 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사각 미안마 난민촌 더 도와야죠"

광주인권평화재단과 태국 의료봉사 손석준 전남대 보건소장

"생각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의 60년대 같았죠. 위생 환경은 열악했고 특히 아이와 여성들은 영양이 부족한 채 중노동에 시달려 근골격계 질환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광주인권평화재단(이사장 김희중 대주교) 봉사단과 함께 태국 국경 메솟지역을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온 전남대 보건진료소장 손석준(54)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9일 기자와 만나 미안마 이주 난민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광주인권평화재단이 구호활동을 펼친 태국 메솟지역은 미안마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으로 1988년 미안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군부의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는 난민들이 정착촌을 이루고 있으며 지난해 총선거과정에서도 난민이 대거 이주해 생활하고 있다. 손 교수는 지난달 16일부터 12일 일정으로 이곳에

서 의사·학생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첫 해외봉사팀과 함께 의료·교육활동을 펼쳤다. 의료봉사활동 기간 전기와 물이 없어 예를 먹었다는 손 교수는 난민들은 주로 소금과 절인 생선, 정제지 지원을 요구했는데 가지고 간 생필품과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했고 시설도 여의치 않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치료할 아이들은 많은데 약이 부족해 알약을 사들 분해 처방해야 했고, 시럽 등도 충분치 않아 넉넉하게 주지 못할 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손 교수는 난민들이 하루 1달러를 벌기 위해 나뭇잎을 이어 이음을 만드는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기본의약품 제공과 아이와 임신부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활동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메솟 지역의 위생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 손 교수는 건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흙먼지가 날려 안

질환 환자가 줄어 있었으며 대부분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 구충제를 처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손 교수는 또 자원봉사 학생들과 함께 펼친 문화교류 활동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만찬을 겸한 교류행사에서 각 팀별로 춤과 노래 경연을 펼쳤는데 "시름을 잊고 봉사자와 난민들이 하나 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광주인권평화재단과 결연협약을 맺은 전남대 보건진료소팀은 오는 11월에도 메솟 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손 교수는 "첫 파견이 현지 사정 파악을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이었다면 오는 11월 2차 파견은 실질적인 구호 활동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의약품과 장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본격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상철·김종남 신부 사제수품 50주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이상철〉 〈김종남〉

천주교 광주대교구(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소속 이상철 힐라리오(76), 김종남 로마노(74) 신부가 사제수품 50주년 금경축(金慶祝)을 맞았다.

천주교에서는 성직자의 길을 걸은 지 25년 되는 해를 '은경축(銀慶祝)', 50주년을 '금경축(金慶祝)', 60주년을 '회경축(回慶祝)'이라고 부르며 특별하게 기념한다.

1935년 5월 함평에서 태어난 이상철 신부는 1961년 3월 사제품을 받고 남동분당 보좌로 사목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서산동분당 주임, 광주가톨릭대 교수, 목포가톨릭회관 관장 등을 지냈으며 2003년 8월 일선 사목에서 물러났다.

이날 행사에는 두 신부의 동창 사제를 비롯해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가족 등 1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두 신부의 동창 사제로는 정진석 추기경(서울대교구장), 최광우 대주교(전 광주대교구장), 장익 주교(전 춘천교구장), 김병도 몬시뇰(서울대교구), 최원훈 몬시뇰(수원교구) 등이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美 학술지 소개된 '광주孝교육'

송정동초 전금자 교사 교육사례 실려



느낀 점을 플라주(페포 등) 맞추어 선과 색을 배합하는 표현기법)로 표현하도록 했다. 미술 교육 중요성을 일러주기 위한 배려였다. 봉사활동 이야기를 일기에 남기도록 해 추억을 되새길 수 있게 했다.

광주 한 초등 교사의 인성 교육사례가 해외 교육전문지에 실렸다. 29일 송정동초등학교(교장 염재필)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전금자(사진·현재 상무초교 근무)교사의 교육 사례와 학생들의 활동이 미국 유명 국제교육 학술잡지(Educational Leadership Journal) 3월호에 소개됐다. 잡지는 국내외 교육계 인사들을 독자로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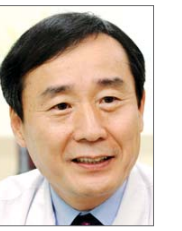
전씨는 학생들과 학교 인근 '성심 의 집'을 방문, 어린이들에게 효의 의미를 일깨웠다. 학생들은 익숙지 않은 손놀림으로 어른들의 손뼉을 쥐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 문화를 배우고 그 시절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에서

활용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러주기 위한 배려였다. 봉사활동 이야기를 일기에 남기도록 해 추억을 되새길 수 있게 했다.

전씨의 사례는 레슬리 대학교(미국 보스턴) 교수인 강영임 박사가 이 잡지에 논문으로 제출해 알려졌다. 미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 박사는 전 교사와 오랜 인연으로 송정동초에서 직접 학생들의 플라주 작업을 지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조선대병원 개원 40주년 국제심포지엄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김만우·사진)은 개원 40주년(4월15일)을 맞아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조선대병원과 조선대병원임상의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제6회 국제심포지엄 Innovative Surgery(혁신적인 수술)'가 오는 4월 2일 오전 8시30분부터 병원 2층 하중현홀에서 진행된다.



곡성 휴게소 저소득층 청소년에 장학금



호남고속도로 한국산업(주) 곡성(천안방향)휴게소(대표 김성수)는 지난 28일 전남조리과학고 재학생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곡성휴게소 제공>

농협 광주본부 '가인회' 복지관 급식봉사



농협 광주지역본부 여직원 모임인 '가인회(佳人會)' 회원 30여명은 최근 광주시 광산구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나간채교수 '5·18후 18년' 美 학술대회서 소개

'폭동'과 '사태'로 인식된 왜곡의 시기를 거쳐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 잡은 5·18의 향쟁사가 국제적 권위 학술대회에 소개된다.

29일 전남대 5·18 연구소에 따르면 이 연구소 소장인 나간채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31일~4월 3일 미호놀룰루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아시아 연구학회 70주년 학술대회에서 5·18에 관한 연구발표를 한다. 나 교수는 '5·18과 18년 향쟁의



발견과정'이라는 주제 아래 5·18을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10일간이 아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까지 지속된 장기간 향쟁으로 해석했다. 그는 18년간 5월 운동을 치열하게 전개된 현장투쟁으로 조명해 소개할 예정이다. /채희중기자 chae@

연못서 유아 구조 조규진씨



연못으로 뛰어들어 박군을 밖으로 옮긴 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했다. 당시 박군은 맥박이나 호흡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위험한 상태였으나 조씨는 침착하게 4분가량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반복해 박군의 의식을 살려냈다. 이후 박군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이후 치료를 받은 뒤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소방본부는 덧붙였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심장이 정지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하트세이버(Heart Saver)'에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일반인이 선정됐다. 전북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연못에서 빠진 어린이를 구한 조규진(32·회사원·익산시 주현동)씨를 하트세이버로 선정해 29일 도청에서 인증서를 주고 시상했다. 조씨는 지난 13일 낮 12시께 교회에 다녀오던 중 연못에 빠져 의식을 잃은 박모(4)군을 발견하고 곧바로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김전규·오혜숙씨 장남 종성군 이상선(광주여상 교장)·고재숙씨 차녀 지향양=4월 2일(토) 오후 1시 40분 광주상록체육관 4층(잠미홀).

▲박래열씨 차남 종영군 최건열(전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안정심씨 차녀 지나양=4월 2일(토) 오후 1시 광주벌영교회 분당 대예배실.

▲이재홍(광주지체장애인협회장)·김명숙씨 장남 민호군 김연근·최복자씨 장녀 자연양=4월 3일(일) 오후 1시 10분 조선컨벤션1층(영빈관)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

중) 총동문회(회장 김형운) 제1회 총동문회장배 유은 동문 한마음 골프대회=4월 2일(토) 군산컨트리클럽. 062-361-2680.

▲광주 사대부중(회장 전성수) 4회 동창모임=4월 4일(월) 오후 6시 흥백(대인동 구 중앙예식장) 앞 추신회관 옆골목) 062-228-3382.

종친회

▲가락 김해김씨·김해해씨·인천이씨 정기총회(회장 김명호)=31일(목) 오전 11시 가락회관 2층(송정동) 062-944-1951.

▲동래정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정항영) 부산회지조선산 한식향사 참례 및 거거대교 탐방=4월 6일(수) 오전 6시 광주상록회관 앞출발. 010-9615-8567.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66만 전·의경 출신 모임=전·의경회 결성. 019-277-0007.

모집

▲한문지도자 자격 연수생=기초반 주중·주말반 각 25명, 연수 기간 3월 10일~8월 20일. 광주여대·교육대 평생교육원. 011-614-4160.

▲(사)대한치어리더협회 광주·전남 광역지부 사무처 시원=사무처 운영팀 업무, 4대보험 가입 및 주 5일 근무,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컴퓨터 활용능력 상급 능력자

우대. 062-367-5577, 085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둠 수업:주1~2회, 회당 40분). 초등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복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한사람 재가복지센터(대표 한순복)=가정방문 요양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식사·취사·세탁·정소·간호·진료의보초, 장기요양 등급 판정, 수시상담 및 접수. 062-513-5654, 011-607-2200.

▲(사)인재육성아카데미 4기 교육생(http://midsarang.com)=대학생 취업역량 강화교육, 수료생 기업 취업률 82%, 기업실무, 구직실제훈련, 예비신입사원훈련, 서울올림픽터어링, 배낭구직활동, 품성교육 등 광주전남소재대학교 2~4학년. 062-224-7733.

부음

▲장경철씨 별세 인공(광주시 정

무특별보좌관)·동호·옥연·미화·미희·미라·미주·숙희씨 부친상 이은경(동신여중 교사)씨 시부상 이영일·송명달·김점문·양우열씨 부부상=발인 31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이용숙씨 별세 송운근·채근·선근씨 모친상=발인 31일(목)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백형섭씨 별세 영애(전남과학대 교수)·영현·우현·윤용(광주보건대교수)씨 부친상 김중원(학교법인 죽호학원 사무국장)씨 부부상=발인 30일(수) 운암 한국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528-4444.

▲신만원씨 별세 영석·미리씨 부친상=발인 30일(수)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故人의 冥福을 받습니다. 故 정운귀 남(남/83세), 故 위귀례 녀(녀/80세), 故 장인심 남(남/85세), 故 임일섭 남(남/88세), 故 문순남 녀(녀/81세). 그린장례식장 24시간 (062)250-4455

삼가 故人의 冥福을 받습니다. 故 김계식 남(남/80세), 故 조일량 남(남/68세), 故 김현준 남(남/69세). 금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